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9월 3일(월)에 배포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함께 해요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주시에서 제3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9월 3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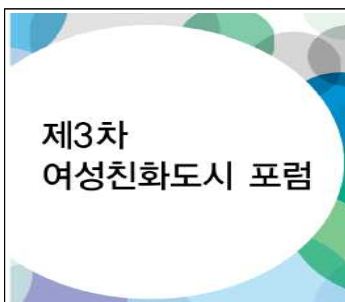
보도 날짜 : 2012년 9월 3일(월)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9월 5일(수) 오후 2시에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주시가 후원한다.

제3차 여성친화도시포럼 개최

 제3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12년 9월 5일(수) 14:00-17:30□ 장소 청주시청 대회의실(본관 4층)□ 주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 청주시
--	--

※ 여성친화도시

: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 여성단체, 지역주민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9월 5일(수) 오후 2시에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주시가 후원한다.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키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2년 총4차례에 걸친 권역별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열린 제 1,2차 포럼에 이어 제 3차 포럼은 녹색수도 청주시에서 개최한다.
- 당일 포럼에서는 김인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모델 : 인천 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가 “지역에서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찾기”를 주제로, 강석진 국립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적용과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며,
 - 변혜선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장, 류정아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지민 충청타임즈 부장, 정선희 충북여성 인권상담소 늘봄 소장, 변혜정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이춘숙 청주시 여성가족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 최금숙 원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주에서 개최하는 제3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향후 여성친화도시의 모범사례로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붙임 1. 프로그램

2. 발표자료 요약본

붙임 1. 프로그램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20	인사말	사회: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14:20-14:30	환영사	한범덕 청주시장 임기중 청주시의회 의장
14:30-14:40	동영상	여성친화도시 홍보 동영상 상영
14:40-15:40	주제발표	·주제1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모델 : 인천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김인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주제2 지역에서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찾기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 ·주제3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 범죄예방환경 설계(CPTED)의 적용과 효과 강석진 국립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5:40-15:50	휴 식	
15:50-16:50	토 론	변혜선(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장)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지민(충청타임즈 부장) 정선희(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소장) 변혜정(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이춘숙(청주시 여성가족과장)
16:50-17:30	질의응답 및 폐회	

붙임 2. 발표자료 요약본

주제1.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모델: 인천 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김인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역사적으로 여성의 건강이라고 하면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성 특이적인 건강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은 생물학적 차이 뿐만이 아니라 성 역할, 자원への 접근과 통제, 적성과 숙련도, 차별적 평가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이는 가정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현대 사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보건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이들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차이를 건강과 연계 시킴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여성 노동자는 대규모의 제조업 공장에 근무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불안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노동환경 또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주된 건강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여성에서는 산업재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고로 인한 재해보다 요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산업과 종사상의 지위, 업종 특성을 생각할 때 여성노동자를 위한 지역사회 모델이 필요하며 이러한 한 단초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중인 근로자 건강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 증진하고자 산재예방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무료 상담소와 비슷한 형태의 새로운 지역사회센터이다. 사업목적의 특성상 여성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가 주된 이용객이다. 이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주요한 지역사회 모델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2. 지역에서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찾기

이춘아(한밭문화마당 대표)

2001년 ~ 2006년: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발아기

2001년 문화유산을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는 민속자료2호인 송용역 가옥에 김호연재(1681~1722)라는 시인이 살았음을 알게되었고, 호연재시집과 글로 여성문화해설을 하였다. 남성중심의 역사문화유산 해설에서 탈피하고자한 시도였다.

2007년 ~ 2008년 :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태동기

2007년 초 문화관광부가 양성평등 지역문화활성화 사업 공모를 하였을 때, 김호연재를 주요 문화콘텐츠로 구성하여 <문화창조자 여성, 대전지역 여성문화자원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했다. 2008년에는 서천의 여성시인 김임벽당을 주제로 사업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300년전 역사속의 여성인물이었던 김호연재, 김임벽당이라는 문화창조자 여성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문화축매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문화인적 자원이 곧 문화창조자 여성으로 이어지고 이들의 활동이 앞으로의 문화창조자 여성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2009년 ~ 2012년 현재 :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정착기

2009년 한밭문화마당은 충청권으로 확산시켜 서산의 여성시인 오청취당 삶을 그린 '스물아홉, 신선이 되다' 라는 마당극을 제작하는 한편 [충청권 여성문학인물 답사] '대전 충청지역 여성문화인물' 지도를 만들어냈다.

2010, 대덕문화원은 [동춘당 송준길가의 여성문화], [회덕의 여성문화 탐방길]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는 이외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대덕구의 해설사들이 여성문화와 관련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김호연재 여성문화축제(10월)를 공식화하였다. 한밭문화마당은 여성주간 기념으로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문화 답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대덕문화원은 [조선시대 요리책 '주식시의' 동네 아줌마, 손끝으로 살아나다] 자료집 발간과 김호연재 여성문화 축제를 하였다. 2011년부터는 '주식시의'의 요리 재연, 호연재의 삶을 다룬 마당극 '봉수 엄마 호연재를 만나다', 호연재의 시를 정가로 부른 음악공연을 하였다. 한밭문화마당은 대전시 후원으로 '외국인이 만나는 옛 대전의 여성문화' 사업을 하였는데, 공주대학교, 카이스트대학교, 충남대학교 외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여성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주제3.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을 통한 안전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방안

국립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강석진

범죄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방법용 CCTV증설과 치안인력/순찰 강화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범죄예방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라 할 수 있다. CPTED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기법으로 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계를 통해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시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함으로써 범죄 및 불안감을 저감시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노력을 지칭한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CPTED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PTED를 통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비사업에 CPTED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의무화와 같은 정책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아니더라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만들기는 더욱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CPTED 적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CPTED 가이드라인/지침을 개발하여 서민 밀집주거지역이나 도시내 공공환경을 중심으로 CPTED를 우선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 뿐 아니라 기본적인 도시 및 건축계획시에 CPTED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정비와 조례개정이 필요한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개정(2011.7)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 개정(2011.5)을 통해서 정비구역 내 가로등,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대책의 적용이 추가되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0조의 3 개정(2011.5)을 통해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 대책, 순찰초소 등 범죄예방 필요시설 설치 및 관리 항목이 추가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률과 조례가 범죄예방 관점에서 개정될 수 있다면 여성친화도시사업과 함께 일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아동과 여성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